

사진기자의 땅짓

엄마, 아빠는 촬영 중

최근 화순군 화순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부모 사진촬영 대회도 프로그램에 포함됐어요. 카메라 앵글에 멋진 모델이라도 들어 오는지 너도 나도 카메라를 들이밀며 셔터를 눌러 댕니다. 돌아보니 모델은 바로 어떤 모델보다 더 어여쁜 자신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공 굴리기, 청백 계주, 바터트리기 등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 주는 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웃고 울고, 넘어지고, 자연스런 연기장면이 이 어질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크고 작은 카메라는 물론 핸드폰까지 가세했습니다. 자녀가 땀 뻘 때,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거나 아

이들 몸보다 더 큰 공을 굴리며 운동장을 뛰어갈때 따라서 몸을 들쭉거리면서도 카메라를 들이댕니다. '김치', '치~즈', '하나 둘 셋~'도 필요없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맺힌 땀, 목청껏 응원하는 아이들 표정도 실재없이 담았습니다. 심지어 근사한 사진을 찍자라며 남들 찍는 곳이 아닌 곳을 요리조리 찾아다니기까지 하더군요. 30년, 40년전에는, 카메라도 드물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를 흑백사진 1장이 초등학교 운동회 추억의 전부였는데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부모들의 자녀사랑이었습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안현미

<전대사대부설중학교 교사>

나를 보듬어준 아이들

있다. 나도 그 말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실행해 옳거나, 나의 그 가면은 수업과 함께 동시에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일단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의 호흡에서 재미가 없으면 내가 재미가 없어 수업에 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웃기는 예, 재미있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의 무섭지 않음(?)이 여지없이 타로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급운영에서 터득한 것은 일단 재미있을 때는 재미있게, 무서울 때는 확실히 무섭게 었다. 또 진실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아침 시간에 책도 읽어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로 하루를 풀어냈다. 그리고 학급운영에 있어 솔직히 도움을 구할 것은 아이들에게 터놓고 선생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이해를 구했다. 중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았던 그 해의 그 아이들은 참 어스런스럽게 나를 보듬어 주었다.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보듬어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하는 스스로 '공감이 맞' 사이라고 내놓고 말하곤 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공감이 맞' 교사와 학생으로 점점 우리 사이는 날로 두터워져갔다. 학급에 아이들이 인정한 내 딸이 있었다. 내가 없을 때는 내 흉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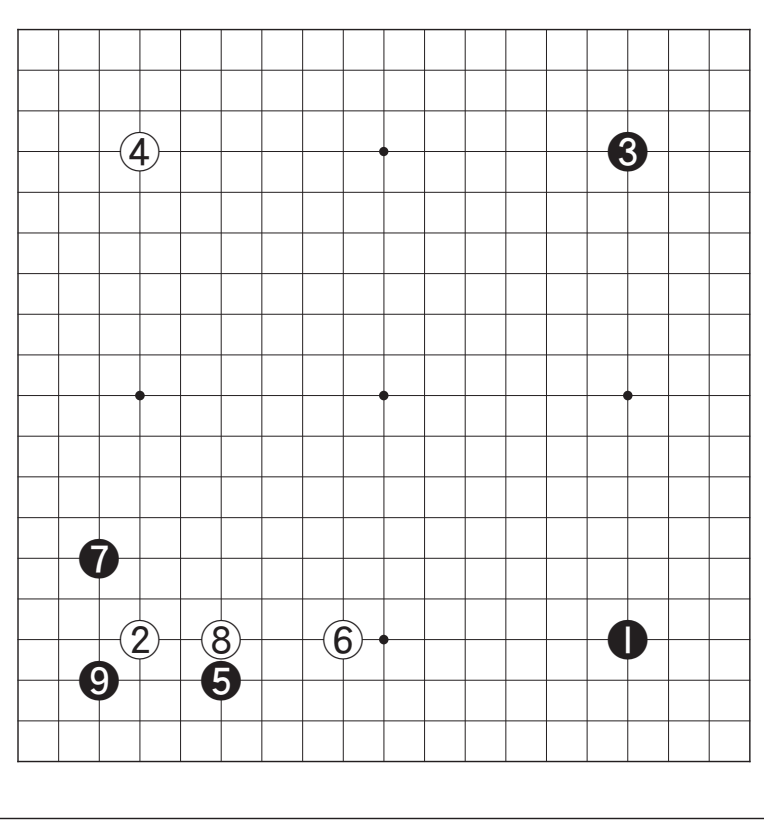
를 내며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아이였다. 어느날 그 아이의 흉내를 내가 보았을 때 정말 나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후 공식적으로 내가 그 아이를 내 딸로 인정했고, 아직까지도 내 딸로 남아 있다. 또 이 아이들과의 경험으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면 더욱더 단합이 잘된다는 것이다. 학급에 도난 사건이 생겼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분실했는데, 중1이라면 서로 의심하며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장과 부반장을 통해 회의를 끼어들지 않고 밖에서 중간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했지만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내는 대견함을 보여주었다. 나는 학급의 단합이 깨지지 않도록 훈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탄탄한 믿음과 신뢰 위에 안정된 학급은 어려움에 처할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다. 해마다 육성이 더 많이 생긴다. 잘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졌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교사로서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항상 아이들 편인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의 밝은 뒤에 감춰진 그늘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알아주고 싶고 상처 난 마음을 만져주고 싶다. 내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쇼터'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음 3월 29일 己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6회 광일배 16년 전통의 직장대회 제1보(1~9)

이 지역 직장 바둑동호인들이 화수고대하던 제16회 광일배 직장바둑대회가 지난 6일 한국기원 광주지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바둑을 통한 직장바둑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바둑의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 광주일보사가 지난 1992년 창설하여 바둑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속에 그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되어 이 지역 직장인들은 물론 바둑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16년 전통의 직장대회이다. 대회는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단체전과 개인전을 겸한 스위스 리그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있는데 1회전부터 전통의 강자들이 맞붙는 등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가 속출하였다. 처음 소개하는 판은 이 지역 아마 강자로 잘 알려진 (주)송림의 김광식 5단과 빛고를 교사회 김영수 5단의 대결이다. 김광식 5단은 왕년에 호남왕좌전에서 우승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 지역에서 몇손가락에 꼽히는 강자이며 김영수 5단은 직장대회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정도로 그동안 꾸준히 직장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번에는 첫판부터 강자들이 격돌, 1회전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판이다. 다음 한 수가 선택의 기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최적한, 물가정보 2연승 최철한 9단이 지난 13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그래밍 본선 C조 리그에서 이영구 6단을 155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했다. 2연승을 거둔 최철한 9단은 최종 결선행을 확정했으며 이영구 6단도 2승1패의 성적으로 결선무대를 밟게 됐다. 이어 열린 B조 리그 이창호 9단과 진동규 3단의 대결에선 이창호 9단이 161수 끝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B조에서는 홍성지 5단이 2연승으로 결선 티켓을 따냈고 이창호 9단과 조훈현 9단이 각각 1승 1패 통틀을 기록했다. 대회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04> 오하우유 니혼고 <904> 니하오 쥬구워 <95> 한자 이야기 <521>

Then how about tomorrow. 그럼 내일은 어때요? A: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this afternoon? B: I'm sorry. I'm afraid I have a previous appointment. A: That's all right. Then how about tomorrow. B: Oh, I'd love to. A: 오늘 오후 저하고 쇼핑가실래요? B: 죄송합니다만, 전 이미 약속을 있는데요. A: 괜찮아요. 그럼 내일은 어때요? B: 아, 좋지요. Would you like to ~ : ~하시겠습니까? previous appointment. : 선약 I'm afraid ~ : 유감스럽게도 ~ I'd love to. : 저야 좋지요.

彼女(かのじょ)でもできたのかな? 애인이라도 생겼나요? A: 佐藤(さとう)さん、この頃なんだか嬉(うれ)しそうですね。彼女(かのじょ)でもできたのかな。 B: どうもそうらしいですよ。~で電話してますからね。 A: そうか、やっぱりね。 B: ほんんか振(ふ)られちゃって~うらやましいな。 A: 사토우씨, 요즘 어쩐지 즐거워보이는군요. 애인이라도 생겼나요? B: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전화하는 걸 보면~ A: 그렇군요. 역시. B: 나 같은 건 차이거나 하고- 부럽군요. ~らしい: ~인것 같다 やっぱり: 역시 うらやましい: 부럽다

我想去买旗袍. 나는 치파오를 사러 가고 싶어 A: 我想去买旗袍。 Wǒ xiǎng qù mǎi qīpào. 워 시양 와이 마이 치파오. B: 你身材很好, 穿旗袍一定很好看。 Nǐ shēncái hěn hǎo, chuān qīpào yīdìng hǎokàn. 니 센차이 흘런하오, 쉐안 치파오 이뵤 흘런 하오안. A: 你觉得我穿什么颜色的旗袍合适? Nǐ juéde wǒ chuān shénme yánsè de qīpào héshì? 니 쥐에더 워 쉐안 셴마 쉐너 더 치파오 흐르스? B: 紫色一定适合你。 Zǐ sè yīdìng shìhé nǐ. 즈 쓰어 이뵤 흐르스 니. A: 나는 치파오 사러 가고 싶어. B: 너는 몸매가 좋아서 치파오를 입으면 틀림없이 예쁠 거야. A: 너는 내가 무슨 색 치파오를 입어야 어울릴 거 같아? B: 자주색이 너한테 어울릴 거야. 旗袍 [qīpào] 중국 여자가 입는 원피스 모양의 의복 紫色 [zǐsè] 자주색 合适 [hésì] 적당하다 알맞다 적합하다 适合 [shìhé] 적당하다 알맞다 적합하다

見金如石 (견금여석) 불 견, 금 금, 갈을 여, 돌 석 견금여석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뜻이다. 즉, 재물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절제해야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고려의 명장 최영(崔瑩:1316~1388) 장군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見金如石)'고 하였다. 최영은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비단천에 '견금여석'이라고 새겨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비록 홍건적(紅巾賊)과 왜구(倭寇) 등을 물리치고 높은 지위에 오른 뒤에도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으며 일반 백성들의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다. 당시의 재상들은 서로 불러 맞이하여 바둑으로 날을 보내고 다투어 진수성찬을 베풀어 호화롭고 사치하기에만 힘썼다. 하지만 최영은 손님을 맞이해 놓고 점심때가 지나도 음식을 차리지 않다가 날이 저물 때에 기장과 벼를 섞어 밥을 짓고 여러 가지 나물을 곁여 차렸다. 여러 손님들이 몹시 배가 고파서 나물과 밥을 모두 먹고 말하였다. "역시 최 장관 때 밥맛이 제일 좋네." 그러자 최영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것 또한 군사를 쓰는 계책이네." (備齋叢話)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티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